

態(Voice)에 對 한 研究

— 受動構文을 中心으로 —

高 泰 洪 .

〈目 次〉

- | | |
|----------------|-------------------|
| I 序 論 | IV 受動態의 用法 |
| II 受動態의 形態와 意味 | V 變形生成理論에 依한 受動變形 |
| III 受動態의 分類 | VI 結 論 |

I 序 論

文의 subject와 predicate이 나타내는 動作과의 關係를 表示하는 動詞의 形을 態(voice)라고 한다. 文法的인 主語가 一定한 動作을 하여, 이 動作이 目的語의 方向으로 나갈 때를 active voice라 하고, 반대로 目的語에서 主語의 方向으로 動作이 이루어질 때 이를 受動態(passive voic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voice는 動作의 方向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動作을 미칠때와 動作을 받을 때에는 形態 내지 構文·內容이 달라지기 때문에 Active→passive의 轉換이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하다는 사실이다.

Transitive verb를 사용한 英語의 表現에는 active voice와 passive voice가 있고 動詞의 性格에 따라서 passive voice를 擇하지 않는 表現과 passive voice만을 擇하는 表現이 있다. 또 形式上으로는 能動態이면서 受動態의 意味로 쓰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形式上으로는 受動態形(be+p. p)이면서 過去分詞는 動詞性이 弱化되어 形容詞로 轉用된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있으므로 <be+p. p>라는 形態를 取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受動態가 아닐뿐 아니라 또 <have(get)+物件+過去分詞>形을 取하는 受動構文이 있다. 더구나 우리말로는 能動態이나 英語로는 受動態인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英語가 가지는 이러한 特徵을 正確하게 理解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처럼 受動態와 能動態는 大体로 뜻의 方向은 같지만 兩者의 表現이 갖는 nuance는 틀리

기 때문에 便宜上 우리말로 알기 쉽도록 voice를 고쳐보는 것은 關係없지만, 同一하게 取及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傳統文法の 立場에서 passive voice의 形態와 意味를 動詞와 關聯하여 살펴보고나서 生成變形 理論에서의 passive transformation에 對한 立場과 PS rule을 통한 變形過程에서의 問題點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II 受動態의 形態와 意味

能動態에서는 動作이 主語에서 目的語로 가는 方向을 나타내는데 반해 受動態에서는 全體的인 뜻은 대등소이 하지만 主語가 動作을 받는 경우가 된다. 즉, 主語가 動作을 하느냐, 받느냐 하는 立場을 나타내는 動詞의 形態를 態(voice)라 하고 前者를 能動態(active voice) 後者를 受動態(passive voice)라 한다.

Pence와 Emery는 態란 動詞의 主語가 動作을 行하느냐 아니면 動詞가 叙述하는 動作을 받느냐를 分明히 밝히는 動詞의 屬性이라 하고 또 態의 變形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Voice is that property of a verb which makes clear whether the subject of the verb performs the action or receives the action described by the verb. If the subject performs the action (or is in the state or condition) described by the verb, the verb is said to be in the active voice. If the subject receives the action, the verb is said to be in the passive voice. A transitive verb may be turned into the passive voice, in which case it becomes an intransitive verb. But an intransitive verb in the active voice is usually incapable of being turned into the passive voice.

- 1) NP₁-Vt-NP₂
- 2) NP₂-be-Vt. ed-by. NP₁

1)은 能動態의 基底文이고 2)는 受動態의 基底文이다. 基底文의 vp는 他動詞이어야 하고 그 他動詞가 樣態副詞(manner adverb) 즉 easily, well, fast, hard, somehow, thus, quickly, badly, bravely 등 -ly로 끝나는 大部分의 副詞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他動詞에 限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樣態副詞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have, cost, weigh, resemble, mean, like, befall, lack 등은 受動態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1) Pence and Emery, *A Grammar of Present-Day English*, pp. 42-43.

- 3) a. My father *resembles* the prime minister.
 b. *The prime minister *is resembled* by my father.
- 4) a. He *has* a good library.
 b. *A good library *is haven* by him.
- 5) a. He *lacked* skill at cards.
 b. *Skill *was lacked* at cards by him.
- 6) a. The book *costs* five dollars.
 b. *Five dollars *are cost* by the book.

1)의 類型안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은 動詞가 動作을 나타내며, 主語는 動作主(agent)이고, 目的語는 受動者(patient)라는 形式이다. 즉 〈動作主—動作—受動者〉라는 形態는 7)과 같은 文에서는 意味內容과 一致하지만, 8), 9), 10)에서는 比喩的인 뜻을 가질 따름이다. 8)의 the frost는 自然의 힘(natural agent)을, 9)의 this key는 道具(instrument)를 나타내고 있으나 比喩的으로는 動作主가 되어 있다. 10)의 主語도 그렇지만 뜻으로 보면 動作主라기 보다는 受動者라 하겠다. 이렇게 能動態라고 불리는 文의 主語도 各樣各色이지만 모두 能動態라고 느껴지는 것은 主語가 動作主인것 같은 表象을 隨伴하기 때문이다.²⁾

- 7) The hunter killed the bear.
 8) The frost has killed the flowers.
 9) This key opened the door.
 10) She fears mice.
 11) The girl felt the wind in her face.

11)의 文章에서 바람은 actor이고 girl은 patient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람에 어떤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소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文法上人間이 目的語라기 보다는 主語로서 役割을 담당하므로써 人間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syntax내에서 論理的인 關係는 形態에 구애됨 없이 먼저 生覺해야 할 問題인 것이다. 〈be+過去分詞〉라는 形態를 갖추고 있다할지라도 그 모두를 受動態라고 認定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過去分詞形이라도 完全히 動詞的인 힘을 잃어 形容詞的인 性格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看做할 때에는 受動態라 볼 수 없고 또 他動詞의 過去分詞가 動詞的인 힘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分詞들이 原來的 形容詞와는 다른 形容詞의 機能으로서 使用되는 것을 分詞의 形容詞라 불리워지는데 動詞를 過去分詞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形容詞로 보느냐를 區別하기란 쉽지 않다.³⁾ 대체로 delighted, interested, pleased, satisfied, ashamed,

2) 中島文雄, 英語의 構造(趙成植譯), pp.178-179.

3) Parmler, and Blandford, *A Grammar of spoken English*, p.75.

concerned, tired 등은 形容詞로 看做되어 *be* 動詞와 連結되었을 때에는 受動態라 認定하기 곤란하다.

12) The sky *is covered* with clouds.

13)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five members.

12)와 13)은 受動態라고는 하나 이미 조성된 狀態를 나타내는 것으로 *preposition phrase* 안의 名詞에는 전혀 動作主라는 느낌이 붙어있지 않다.

14) He was (very) much surprised by her conduct.

15) He ~~was~~ very (much) surprised at her conduct.

14)와 15)은 모두 *very much*로 *surprised*를 강조할 수 있으나 14)는 *very*만으로 강조할 수 없다. 이는 *surprised*가 動詞로서의 機能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15)에서는 *very surprised*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surprised*가 形容詞로서 取及받게 된다는 뜻이다.

動詞중에는 自動詞로 쓰여 뜻은 受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論理的인 範疇(logical category)와 文法的인 範疇(grammatical category)가 一致하지 않는 現象인 것이다. 이 경우 Jespersen은 能受動態(active-passive voice)라고 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動詞에는 *sell, keep, tear, peel, read, play* 등이 있으며 *well, easily* 등이 副詞句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16) This baggage *carries* easily.

17) This play *reads* better than it acts.

18) This paper doesn't *tear* straight.

19) This magazine will *sell* well.

20) The bread does not *bake* well in the oven.

自動詞가 內包하고 있는 *passive sense*는 <be+p.p>form이 內包하고 있는 *passive sense*와는 *force*에 있어서 가끔 一致되고 있지 않다. 즉 前者는 受動의 動作이 容易하고 自然스럽게 進行되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の 경우에는 受動의 動作이 힘차고 意識적으로 進行되고 있다고 Cur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⁵⁾

These two passive forms are often not identical in force. The passive with passive form represents a person or thing as being affected by an agent working un-

4) Jespersen, *Modern English Grammar*, III, p.347.

5) Curme, *Syntax*, p.441.

der resistance vigorously and consciously to a definite end, while the passive with intransitive form represents an activity as proceeding easily, naturally, often almost spontaneously.

need, deserve, merit, want, bear, worth 등의 動詞 다음에 gerund가 사용되면 이 gerund는 文章內에서 受動의 意味를 갖는다. 그러나 不定詞가 오면 受動의 不定詞로 해야 한다.

- 21) Your shoes want *mending*. (to be mended)
- 22) The house needs *painting*. (to be painted)
- 23) It's an idea worth *carrying out*. (to be carried out)
- 24) His opinion won't bear *repeating* in public. (to be repeated)
- 25) His brave action certainly deserves *rewarding*. (to be rewarded)

이외에 26)喜怒哀樂, 놀람등의 感情을 나타내는 動詞, 27)思考, 知識, 決意를 나타내는 動詞, 28)事故, 皮害를 나타내는 動詞, 29)從事, 慣例, 誕生, 結婚 등을 나타내는 動詞들은 受動態로 사용되거나 우리말로는 能動으로 번역되고 있다.

- 26) a. I *was contented* with the news of your success.
b. I *am terribly ashamed* of my mistake.
c. I *was surprised* at his rudeness.
- 27) a. I'm *convinced* of his honesty.
b. He *is determined* to become a doctor.
- 28) a. The mails *were delayed* by heavy snow.
b. The train *was derailed*.
- 29) a. He *is engaged* in agriculture.
b. She *isn't used* to setting up late at night.

Margaret M. Bryant는 "Modern English and Its Heritage"에서 어떤 事件을 動作의 行爲者와 動作을 당하는 두 觀點에서 관찰하고 그 상황에 따라 be動詞의 形態도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⁶⁾

In Modern English facts may be looked at from two points of view, from that of the doer and from that of the thing done. When facts are looked at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doer, the verb is in the passive. The sense of the sentence is the same but there is a different word order, a different form of the verb, and the addition of the preposition *by*.

Joan *Painted* a picture.

6) Margaret M. Bryant, *Modern English and Its Heritage*, p.257.

A picture *was painted* by Joan.

The passive in colloquial English sometimes employs other verbs besides the verb *to be*, such as *get* and *become*, as in *If he would get promoted, we could go abroad*, or *The man is becoming fatigued*.

態에 대해 傳統的으로 說明되어 온 意味와의 相關性에 對한 強한 傾向이 있음은 事實이지만 能動과 受動이 差異는 意味가 아니라 形式과 構造란 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

Ⅱ 受動態의 分類

英語의 受動態는 <be+過去分詞>로 構成되는 것이지만 이 受動態가 動作이나 狀態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들의 뜻에는 상당한 差異가 있고, 또 뜻에 따라 be動詞代身에 여러 動作이나 狀態의 動詞를 使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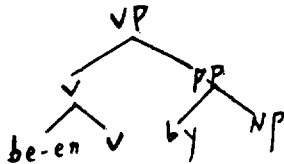
- 30) a. The house *is painted* every year.
b. The house *is painted*.
- 31) a. I don't know when it *was shut*.
b. The door *was shut* at six when I went by.
- 32) a. His bills *are paid* regulary every month.
b. His bill *are paid*, so he owes nothing now.
- 33) a. She *was married* when she was just 19.
b. She *has been married* these ten years.

30)~33)에서 a는 動作이 強調되어 있으므로 動作受動態(actional passive)의 例가 되며, b는 現在의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狀態受動態(statal passive)라고 할 수 있다. a에서는 動作(action)이 어떠한 狀態(state)로 넘어가는 過程을 나타내고, b에서는 一定時에 있어서의 狀態(state)를 나타내고 있다. 動詞의 뜻이 相關關係를 내포하는 경우, 이 動詞는 他動詞가 되어 目的語를 取하게 된다. 여기서 主語-目的語의 關係를 passive voice의 立場에서 考察해 보면, 복잡한 여러경우를 내포하고 있지만, 代表的인 受動態라는 것은 動作主에 對한 受動者를 主題로한 構文이라는 것이다.

- 34) John *was beaten* by Tom.
35) The bear *was killed* by the hunter.

34)와 35)에서 John과 the bear가 主題가 되어, 動作主인 Tom과 the hunter가 pp로(斜格으로) 나타나 있다. 이 構造는 그림 1)과 같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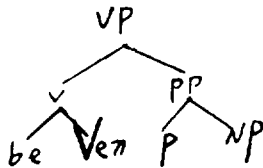
그림 1)



36) For weeks before Christmas, shops are crowded with people buying Christmas presents.

36)에서 crowd는 本來 他動詞로서, shoppers crowded the store처럼 目的語를 取할 수 있겠는데, 위의 受動態에서는 by people이라고 해야 할 것이 with people로 되어 있다. 이것은 are crowded가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動作主를 가리키는 by people이 아니라 with people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are crowded는 動作의 受動態(actional passive)가 아니라 狀態의 受動態(statal passive)가 되어버린다. 그림1)의 도형은 動作受動形의 構造이며,

그림 2)



狀態受動形의 도형은 그림 2)와 같이 된다. 이 Ven은 過去分詞이며, 本來의 受動形이 助動詞 be-en에 依한 V의 變化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여, 狀態受動形에서는 처음부터 Ven을 부여 받고 있다. 이것은 過去分詞가 形容詞의인 性格을 띠어 狀態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뒤따르는 pp의 前置詞는 動作主를 가리키는 by이외의 것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過去分詞가 形容詞化하는 계기를 엿볼 수 있고, 受動形이라

고는 하나 pp안의 名詞에는 전혀 動作主라는 느낌이 들어 있지 않다.⁷⁾ 이처럼 受動態가 actional passive나 statal passive이냐는 文脈에 依하여 區別되고 있다.

<get+過去分詞>로된 passive form은 <be+過去分詞>의 'be'가 狀態를 表示하는 觀念이 強하여 始作이나 動作을 表示하는 觀念을 壓倒해 버리고 있으므로. actional passive의 動作을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 be動詞代身에 become, get, grow 등을 使用하고 있고 causative passive(使役의 受動態)을 만들기 위해서 get, have, make를 使用하고 있다. 반면 statal passive의 경우 狀態의 意味에는 lie, remain, stand 등을 쓸수 있다.

7) 中島文雄, 英語의 構造(趙成植譯), pp.180-184.

- 37) He *became known* to us quite accidentally.
 38) He *became respected* by everybody.
 39) He *became used* to such things.
 40) When did he *get married*?
 41) I want to *get shaved*.
 42) I ran after the dog, and *got bitten*.
 43) I tried to catch the horse, and *get kicked*.
 44) I *had* my watch *stolen*.
 45) Where can I *get* this *printed*?
 46) He wished me to *make* it *known* to her.
 47) They *stood opposed* to the plan.
 48) A lot of paper scraps *lay scattered* about in the ground.
 49) Many problems still *remain unsolved* before us.

37)은 we came to know him quite accidently, 38), 39)와 40)은 始作의 受動態이고, 41), 42)와 43)과 같은 absolute passive(絶對受動態)에서는 agent가 따르지 [않고 있다. 44)는 受動態의 Idiomatic Form이고, 45)와 46)은 causative passive이며, 47), 48), 과 49)는 statal passive의 狀態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George Curme은 colloquial speech에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助動詞 get를 使用하여 動作을 表示하는 passive form으로서 literary English에 使用이 確定된다면 이는 英語에 決定的인 利得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⁸⁾

If this expressive, actional, passive form with the auxiliary *get*, already quite common colloquially, ever becomes established in literary English, it will be a decided gain to the language.

또 Curme은 어떤 動詞의 past participle은 거의 순수한 形容詞的인 힘(pure adjective force)을 가지며 그러한 past participle들과 이 *get*나 *become*과의 使用은 전혀 動作을 나타내지 않고 一時的이거나 最終的인 狀態의 始初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The past participle of certain verbs have almost pure adjective force. The use of *get* or *become* with such past participles does not indicate action at all, but merely the beginning of a temporary or a final state: I am *getting* (or *becoming*) *tired*.

8) Curme, *Syntax*, p.446.

9) *Ibid.*

IV 受動態의 用法

보통이 文章에서는 agent나 actor가 우선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action이나 result가 agent나 actor보다 더 重要하고, 가끔 actor를 모르거나 언급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受動態構文으로 英語에서는 表現되고 있다. 能動態와 受動態中 어떤 形態를 取할 것이냐는 文脈이나 強調되는 部分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 50) a. In June somebody completed the new road.
 b. The new road *was completed* in June.

두 文章에서 50)b의 passive에서는 somebody가 생략되어 있지만 active보다는 훨씬 잘 쓰여지고 있다. 예를들어 1623년에 하나의 책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言及하면서 출판자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면 출판된 行爲가 main action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subject+verb+object>pattern을 使用하면 51)과 같은 文章이 된다.

- 51) A person or persons whom we do not wish to mention just now published the book in 1623.

이 文章에서 action의 receiver인 book이 missing actor 보다 더 重要하므로 subject position에 book을 놓고 受動態 文章으로 52)와 같이 만들어진다.

- 52) The book *was published* in 1623.

어떤 경우에는 passive construction이 便利하고 必要한데, 이것은 actor가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를 言及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들어 한 新聞社記者가 53)과 같은 글을 쓴다면 眞實을 말하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명예훼손이 되기 쉽다.

- 53) John A. Scrogum murdered Joseph Meek at 7:45 this morning in the Hot Spot Lunch.

왜냐하면 이 記事를 作成한 記者나 新聞社는 法的으로 尤죄판결을 받지 않는 사람을 살인자로 고발함으로써 告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記者는 54)와 같은 記事를 써야 할 것이다.

- 54) Joseph Meek *was shot and killed* at 7:45 this morning in the Hot Spot Lunch.

이 記事는 actor가 제거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Dwight Bolinger는 "Meaning and Form"에서 受動態는 어떤 特定한 動詞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speaker의 intention(意向)이나 受動態의 主語가 動作에 依하여 영향을 받느냐에 依해서 能動態가 受動態로 變形可能하다고 보고 있다.¹⁰⁾

- 55) a. Nobody is to camp beside this lake.
 b. This lake is not to be camped beside by anybody.
- 56) a. My sister camped beside the lake.
 b. *The lake was camped beside by my sister.
- 57) a. Generations of lovers have walked under the bridge.
 b. The bridge has been walked under by generations of lovers.
- 58) a. The dog walked under the bridge.
 b. *The bridge was walked under by the dog.
- 59) a. George turned the pages.
 b. The pages were turned by George.
- 60) a. George turned the corner.
 b. *The corner was turned by George.

55)에서는 야영을 함으로써 호수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뜻에서 금지해야 된다는 意志가 포함되지만 56)에서는 단순히 어디에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57)에서는 generations of lovers에 의하여 the bridge가 romantic한 장면을 지니는데 반해서 58)은 그런 인상이 없다. 59)a가 59)b로 바뀌어지는 것은 the pages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것이고, 60)a가 60)b로 바뀌지 못하는 것은 그당시 George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言及하므로 不可能하다.

Correll과 Laird는 "Modern English Handbook"에서 passive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인다 하고 있다:¹¹⁾

- The passive, then, has very definite uses. It is properly used when
- (1) the subject is not known;
 - (2) The subject is known, but for some good reason cannot, or had better not, be mentioned;
 - (3) the receiver of the action is so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actor that emphasis properly belongs on the receiver;
 - (4) one of the elements of the actor-action pattern must be moved from its normal position for stylistic reason.

10) Dwight Bolinger, *Meaning and Form*, pp.9-10.

11) Correll and Laird, *Modern English Handbook*, pp.229-230.

再歸代名詞를 目的語로 하는 動詞은 보통, 動作을 나타낼 때는 能動態를 쓰고, 狀態를 나타낼 때는 受動態를 쓴다.

- 61) a. She *dressed herself* in armour.
 b. She *was dressed* in armour.
 62) a. John *shot himself*.
 b. John *was shot*.

그러나, Frank Parker는 Lehmann이 再歸代名詞와 受動態는 같은 것으로 보는 見解는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¹²⁾

Lehmann claims that middles used reflexively took on passive meaning because reflexive and passive meanings are "scarcely...distinguishable." But consider an example in Modern English: Lehmann's hypothesis would imply that *John shot himself* means the same as *John was shot*. This is clearly false, since John must be the agent in the first sentence, but he cannot be the agent in the second. Further, Lehmann's solution violates the apparently universal principle that reflexives cannot be made passive (ch. Postal 1971).

또 分詞가 수식하는 名詞에 後置하면 分詞는 動詞의 性格을 띠는데, 動詞에 目的 및 副詞語句가 없을 경우 現在分詞가 名詞에 後置하여 受動的인 뜻을 지닐 때가 많다.

- 63) a. There is a new bridge building.
 b. A new bridge *is built*.
 64) a. There is an answer waiting.
 b. An answer *is waited*.

또 他動詞의 過去分詞가 뒤에서 名詞를 수식할 경우에는 <關係代名詞主格+be 動詞+過去分詞>의 短縮形으로 受動的인 뜻을 가지며 過去分詞가 앞에서 名詞를 수식할 경우에는 순수한 形容詞의 구실을 한다. 이외에 受動態로 흔히 쓰이는 動詞들은 感情表示動詞, 被害表示動詞, 關係表示動詞, 從事に 關한 動詞들과 能動文의 主語가 文脈上 分명한 경우이다.

- 65) I *was disappointed* in him.
 66) The ship *was wrecked* in the storm.
 67) I *am not concerned* with the work.
 68) He *is absorbed* in reading.
 69)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12) Frank Parker, "Language Change And The Passive Voice", *Language*, V. 52.(1976), p.449.

受動態를 論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前置詞를 동반하는 動詞構文이다. 다시 말해서 自動詞로 많이 쓰이는 動詞에 前置詞가 붙어서 他動詞로 간주되는 動詞의 경우인데 이때 動詞와 前置詞가 밀접한 文法的인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能動이나 受動構文에서 動詞와 前置詞를 떼어 놓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70) a. All the person present laughed at her.
 b. She *was laughed at* by all the persons present.
 71) a. They sent for the doctor speedily.
 b. The doctor *was speedily sent for*.

V 變形生成理論에 의한 受動變形

生成變形文法은 두 가지 規則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深層構造를 生成하는 句構造規則(phrase-structure rule)이고 또 하나는 深層構造를 表層構造로 바꾸어 놓는 變形規則이다. 이 句構造規則은 核文인 能動構文을 만들어 낸다.

受動變形에 關해서는 現在 두 가지 相異한 見解가 대두되어 있다. 즉 受動文은 句構造規則에 依해서 만들어진 能動文에 NP switch rules, by insertion rule 및 be-En insertion rule 등의 隨意的인 變形規則을 加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고(標準理論), 다른 하나는 受動文도 能動文과 마찬가지로 獨立된 基底構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生成意味論).

能動文이 受動變形的 入力이 되어 受動文이 나오는 Chomsky의 最初の 受動變形理論은 72) 公式으로 나타난다:¹³⁾

- 72) NP, Aux, Vt, NP', X \implies NP', Aux+be+En, Vt, by+NP, X.

이에 73)의 예문을 들어 句構造標識을 해보면 그림 3)과 4)가 된다.

- 73) a. John saw the fish.
 b. The fish *was seen* by John.

13) Kinsuke Hasegawa, "The Passive Construction In English", *Language*, V. 44(1968), p.230.

그림 3) 能動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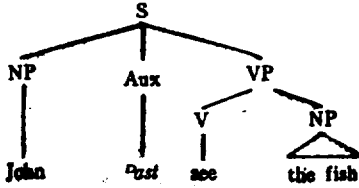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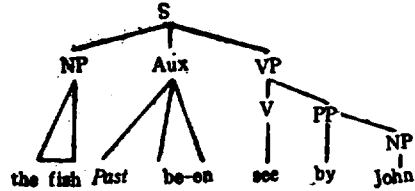


그림 4) 受動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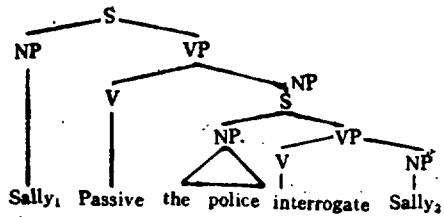
受動文도 能動文과 마찬가지로 獨立된 基底構造를 가진다는 Chomsky의 나중의 理論을 公式化하면 74)와 같다.¹⁴⁾

$$74) \text{ NP, Aux, V, X, NP', Y, by passive, Z} \implies \text{ NP', Aux+be+En, V, X, Y, by, NP, Z}$$

예문 75)의 深層構造는 대략 다음 分枝圖와 같이 表現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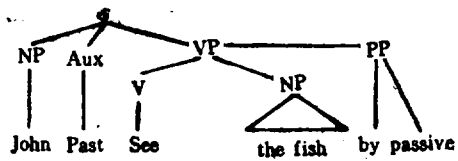
75) Sally was interrogated by the police.

그림 5)



74)의 能動文의 基底構造에서 "John saw the fish"를 유도하면 그림 6)과 같은 underlying P-marker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림 6)



74)能動文에 있는 by passive는 實質的으로는 아무런 役割을 못하나 受動變形을 할때에 動作主格句(agent phrase)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必要한 假想的 要素이다.¹⁵⁾ 初期의 變形理論에

14) Ibid.

15) Emmon Bach, *Syntactic Theory*, p.91.

서 受動文은 $\langle NP_1-Vt-NP_2 \rangle$ 의 形態가 可能한 能動文章일 경우에 變形을 거쳐 $\langle NP_2-be-Vt \cdot en-by+NP \rangle$ 를 만들어 내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의 受動變形規則은 同一한 深層構造에 $be+Ven$ 과 by NP를 삽입하거나 移動시키므로써 만들어지고 Vt 와 NP 는 原來의 뜻 그대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變形은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Chomsky는 句構造와 變形部分(transformational part)을 지니고 있는 가장 單純한 文章을 세우면 核文은 能動敘述文章이고 모든 다른 文章은 이 核文의 變形으로 敘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이렇게 變形文法の 初期에 受動文은 核文章인 能動構文에 隨意的인 受動變形規則을 적용시켜 生成되는 文章으로 보았으나 resemble, have, marry, mean, weigh, cost 등의 포함된 能動文은 76)~78)과 같이 受動文으로 바뀔 수가 없다.

- 76) a. Bill resembles John.
 b. *John is resembled by Bill.
 77) a. John has a good book.
 b. *A good book is had by Tone.
 78) a. The suit fits me.
 b. *I am fitted by the suit.

또 80)처럼 $\langle NP_1-Aux+be+Vt \cdot en-by+NP_2 \rangle$ 의 형을 $\langle NP_2-Aux+Vt-NP_1 \rangle$ 로 轉換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變形文法理論에서 強調하는 一般성이 상실된 모순성을 나타내게 된다.

- 79) a. The wine was drunk by the guests.
 b. The guests drank the wine.
 80) a. John was drunk by midnight.
 b. *Midnight drank John.

그래서 오늘날의 變形文法理論에서는 受動文은 受動變形規則에 의하여 說明되지 않고 句節構造規則 (phrase-structure rules)에 의하여 能動文에서 直接生成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atz와 Postal은 passive marker인 $by+passive$ 를 갖는 underlying structure에서 受動文章을 直接生成시키므로써 變形文法에서 검토되는 問題點을 제거했다.¹⁷⁾ 또 Chomsky는 이렇게 受動變形規則으로 해결될 수 없는 問題들이 많이 發見되자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1965)에서는 能動文과 受動文은 各各 다른 基底構造에서 派生되는 것으로 보고 隨意

16) Chomsky, *Syntactic Structures*, p. 80.

17) *Ibid.*

規則이 아닌 義務規則으로서 基底構造에 dummy element(模擬要素)를 넣고 manner adverbials의 취사여부에 의하여 變形規則의 適用·不適用의 基準原則을 結定했다: 18)

Manner → *by-passive*
 NP—Aux—V—……—NP—……—*by-passive*

이 原則은 最初의 原則(1957)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월등이 낫다:

① manner adverbials를 자유롭게 취하는 動詞만 受動變形을 할 수 있다는 動詞에 '對한 制限을 두고 있다.

② 代入變形規則에 依하여 受動文의 派生句節標識을 說明하는 것이 可能해진다.

③ Pseudo-passive에 對한 說明이 可能해진다.

ex. 81) The proposal *was vehemently argued* against.

82) The new course of action *was agreed* on.

83) John *is looked* up to by everyone.

그러나 이러한 基準設定으로도 解結할 수 없는 問題點들이 受動形構文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다. 가령 know, believe, consider, think, see, hear, perceive 등과 같은 動詞들은 manner adverbials를 自由로이 取하지 못하나 受動變形規則은 適用될 수 있다. 19)

84) a. Everyone knew that Bill was tall.
 b. That Bill was tall *was known* by everyone.

85) a. John considered Harry a fink.
 b. Harry *was considered* a fink by John.

86) a. John saw Harry.
 b. Harry *was seen* by John.

또 manner adverbials를 자유롭게 取하고 있는 動詞들 중에서도 受動變形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87) a. The man minded his own business.
 b. *His own business *was minded* by the man.

88) a. The two friends shook hands.
 b. *Hands *were shaken* by the two friends.

89) a. We changed buses.
 b. *Buses *were changed* by us.

18)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pp.103-104.

19) George Lakoff, *Irregularity In Syntax*. pp.156-157.

變形理論에서 곤란한 또하나의 問題는 <be+En>만이 受動文을 形成하는 要素가 아니라는 事實이다.²⁰⁾

- 90) The door *got shut* (by someone).
- 91) The mail *gets delivered* every day.
- 92) The treasure *got found* by the skin.
- 93) He will *get killed* by the snake.
- 94) I *got forced* to marry the girl by her father.

<get+En>는 <be+En>과 마찬가지로 많이 使用되므로 또하나의 受動變形規則을 設定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勿論 兩者가 같은 受動變形의 異形(variants)로 生覺할 수는 없다. 더구나 Traditional Grammar에서 be動詞 代身에 使用되는 become, grow 및 狀態의 意味에 使用되는 lie, remain, stand 등의 變動構文에 對해서는 一般性 있는 文法體系의 設定이 곤란하다.

이처럼 規則만으로 解決할 수 없는 問題들이 發見되어 오늘날 變形文法理論에서는 能動構文과 受動構文과의 關係가 規則에 의해서 說明하기가 곤란한 立場이다.

VI 結 論

英語文法안에 能動態와 受動態가 있다는 것은 두 態의 用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意味하며 그러기에 그 形態의 意味와 用法을 올바르게 理解할 需要가 있었다. 대체로 말해서 우리들이 一定한 뜻을 나타낼 때 어떠한 사람이나 物件에 對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얼마나 높은 비중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受動構文을 쓰기도 하고 能動構文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受動態라고 해서 動詞의 모습이 언제나 <be+p.p>의 형태를 취한다고 단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be動詞의 뜻과 거의 유사한 become, get, grow 등도 be動詞와 같은 취급을 받아 <become, get, grow+P.P>라는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있고, 過去分詞가 be動詞와 連結되어 完全히 動詞的인 힘을 잃어버리고 形容詞的인 性格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주될 때에는 受動態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動詞의 形態의인 面을 본다면 엄연히 能動態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內包하는 뜻은 受動態로 간주해야 되는 構文이 있고 動名詞로 使用되어 受動的의 뜻을 지니고 있는 반면, <have(get)+目的語+過去分詞>form을 가진 特殊한 受動態가 있다. 더구나 우리말로는 能動이나 英語로는 受動인 경우의 文章들은 受動形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빚게 하고

20) Kinsake Hasegawa, "The Passive Construction In English", *Language*, V. 44(1968), p. 232.

있다. 그러므로 受動態를 일률적으로 <受動主語+be+動詞의 過去分詞+by+能動主語>라는 形態로 묶어버리면 곤란하므로 文脈에 의해 態를 區別해야 하겠다.

初期의 變形理論에서 한 文章의 意味는 基底構造에서 나타난다는 가정하에서 受動文은 能動文을 基底構造로 하여 受動變形規則에 의해 生成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隨意的인 受動變形規則으로 解結될 수 없는 問題들이 많이 發見되어 manner adverbials를 受動變形規則의 重要한 特徵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 理論 역시 manner adverbials를 취하지 못하면서 受動化가 可能한 動詞들이 있다는 点에서 또 受動態의 要素인 <be+En>形態이외 <get+En>도 <be+En>과 똑같은 방식으로 文章에서 受動態의 要素로 역할을 하고, 特히 by+NP라는 動作主도 다른 preposition phrase로 代置된다는 点에서 一般性(generality)이 결여되어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規則에 依하여 광범위한 英語의 受動文章을 간단명료하게 說明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으로 受動態에 對한 많은 研究가 있어 이처럼 어려운 問題의 解結策이 곧 나왔으면 한다.

— Summary —

A Study on Passive Voice

Tae-hong Ko

Voice is the property of a verb which makes clear whether the subject of the verb performs the action or receives the action described by the verb. If the subject performs the action described by the verb, the verb is said to be in the active voice. The English passive is formed with an auxiliary, generally *be*, but often also *get* or *become*. As a rule the person or thing that is the centre of interest at the moment is made the subject of the sentence, and therefore the verb is in some cases put in the active, in others in the passive.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e choice of the passive turn is due to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

1. The active subject is unknown or cannot easily be stated.
2. The active subject is self-evident from the context.
3. There may be a special reason for not mentioning the active subject.
4. The reason why the passive turn is preferred is generally the greater interest taken in the passive than in the active subject.
5. The passive turn may facilitate the connexion of one sentence with another.

Adverbs of manner cannot be used in sentences containing "description" verbs because "description" verbs have no action. Only those sentences with transitive verbs that can readily accept adverbs of-manner can undergo the passive.

In transformational Grammar, the phrase structure rules produce "active" sentences. "Passive" sentences are created from certain types of active sentences by an optional transformational rule.

(a) NP, Aux, Vt, NP', X \implies NP', Aux+be+En, Vt, by+NP, X.

But there are found problems to be solved in transformational process. Thus, manner adverbial should have as one of its realizations a dummy element signifying that passive transformation must obligatorily apply. That is, we should rewrite a base rule(b) and formulate the passive transformation so as to apply to strings of the

form(c) with an elementary transformation that substitutes the first NP for the dummy element passive and places the second NP in the position of the NP :

(b) Manner → *by* *passive*

(c) NP—Aux—V—……—NP—……—*by* *passive*—……

Much remains in passive transformation to be do in the future.